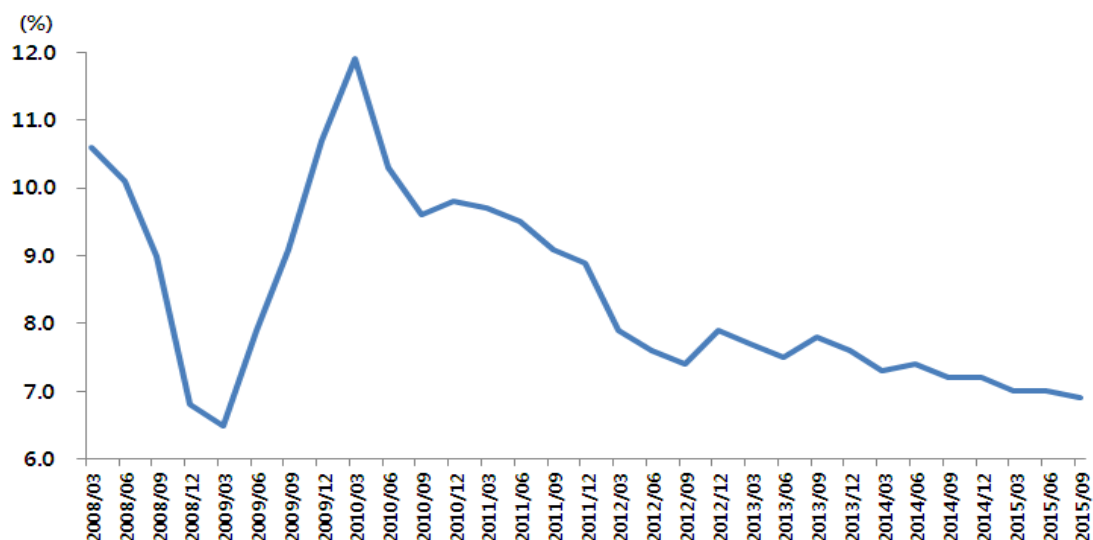

중국경제 3/4분기 6.9% 성장

(2015.10.20)

BNK금융경영연구소

- 6.9% 성장률은 2009년 1/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의 예상(6.7%)보다는 높음
-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4년 7.3% 금년 1/4 및 2/4분기 7.0%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금년 목표는 7.0%

중국 실질 경제성장률(분기별)



- 부문별로는 제조업 및 부동산부문이 다소 부진했으나 서비스부문이 8.4% 성장
- 1~9월 부동산 투자는 2.6% 증가하여 2009년도 이후 최저 수준 기록

- 성장률 통계 발표 후 주식시장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음
 - 상해주가는 발표 직후 소폭 상승하다가 0.1% 하락 마감
 - 유럽주가(DJ EURO STOXX 50)는 0.2% 상승
 - 미국주가도 S&P500 및 다우존스가 각각 0.03%, 0.1% 상승

-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세의 급속한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및 제조업 투자위축을 보완하여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
 - 중국 중앙은행도 연내 금리인하 및 기준을 축소 예상

- 한편 금년 1~8월중 중국의 자본순유출 규모는 5천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(미국 재무부)되며 특히 위안화 절하가 발표된 8월에 2천억달러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남
 - 미국 재무부는 중기적으로 위안화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지난 8월 위안화 절하 당시 대규모 자본유출에 비추어 환율절하를 통한 경기위축에 대한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

(작성: 엄지연 대리)